생활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

(레24:1~2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3.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생활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

어제는 안식일과 5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열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선 구원열차는 우리의 영혼 구원열차로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2호선 구원열차는 지상에서의 생활의 구원열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2호선 구원열차의 여행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어제 안식일과 절기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이어서 갑자기 또다시 성막 내의 '등잔대의 등잔불을 24시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성막 내의 진설병 떡 상에 떡을 올려놓는데 안식일마다 바꾸고 여섯 개씩 두 줄로 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유향만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던 안식일과 절기가 열차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계속돼야 하는데, 그

창조사역을 열차로 생각해서 올라타게 되는 탑승 정류장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 의미의 변화를 준 것이 절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는 열차를 올라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얘기는 올라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인데 성막의 등잔대와 진설병의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여행의 진수를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행의 기가 막히는 즐거움을 맛보려면 삶의 구원열차를 타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2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처럼, 2호선 삶의 구원열차를 타고 여행을 한 사람들만이 영혼 구원열차인 1호선으로 바꿔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삶의 구원열차를 타고 기차여행을 하다가 1호선 영혼구원열차로 갈아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이름 난 세계적인 기차여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기차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오래 지냈으면서도 북유럽의 숲이 아름답고 호수가 환상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융프라우 등반기차가 유명하고, 그러나 여행가들이 전 세계 최고의 기차여행으로 꼽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루트레인(The Blue Train) 기차여행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파란색이고 로고가 금색으로 박혀있는데 기관차가 두 대이고 이 두 대가 끄는 기차가 18량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넬슨 만델라,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마이클 잭슨, 타이거 우즈, 나오미 캠벨, 아놀드 파마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탑승을 했는데 하나 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꿈의 여행이라고 말하는 초호화 열차 여행이라고 합니다. 16세 미만은 아예 탑승이 안 돼요. 이 열차를 일단 타면 각각 방이 주어지는데 방안에는 통으로 된 창으로 아프리카의 햇빛이 들어오면서 테이블과 침대가 있고 화장실과 큰 욕조가 있고 바닥은 다 카펫으로 깔려있습니다. 일단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최고 요리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정찬으로 제공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도주로 유명한데 최고급 포도주와 위스키와 최고급 맥주들과 간식이 다 무료입니다. 거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라든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km를 27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달리는 5성급 호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시간 동안 1,600km를 달려가는 두 가지 기차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통으로 된 창으로 밖을 구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차 안에서의 호사스러움과 안락함과 쾌적함의 즐거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차 여행의 진수라는 것이죠. 이 블루트레인은 76명만 받아들이는데 이 76명을 섬기기 위한 butler(집사)가 28명입니다. 28명이 76명을 27시간 동안 왕을 받들듯이 모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료고 외부로 전화를 걸 때에 전화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즐기며 1,600km를 시속 60-70km로 27시간 동안 달리는 것입니다.

선민이 누구입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태초의 안식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시기 전에 그 창조사역의 계획에 사람을 태우십니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계획에 올라타면 그 사람과 연관된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열차가 달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창조사역의 열차 안에서 두 가지 진수를 누리게 되는데 차창 밖 풍경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기차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면 되는데 블루트레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올라탄다.'고 했는데 사실 올라탄 채로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을 노동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勞動)'이란 노력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노력하여 행동합니까? 무언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가치를 얻기 위함인데 그 노동을 멈추면 삶의 구원열차를 타게 되고 기차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가는 기차를 올라타면 부산까지 가겠다고 기차 안에서 달릴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살다보면 자꾸 하차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기차를 올라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또 하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물으실 텐데, 하차하므로 다시 올라타라고 매주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이고 절기가 주어졌는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 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구원열차를 타게 되고 내가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면 자식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물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기차를 올라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는데, 하차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마다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안식일을 순간마다 지킬 수 있게 한 사건이고 모든 순간을 안식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마음이 자꾸 하차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올라타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는 중에도 마음에서 십자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는 것이고, 노동을 멈춘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가치에 대해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고 세상 가치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구원열차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기억하면 이 구원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는 구원열차를 계속해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

다.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활동의 기차를 타고 진행되는데 십자가가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 초를 안식일로 바꾼 사건이 십자가사건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라는 것은 삶의 구원열차에서 절대로 하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급박한 사업장의 현실이나 가정의 현실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차하지 않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하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차여행이 진행될 때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대해서 오늘 '등잔불'라는 말로 상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인데 어두우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3: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동안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이게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의 일등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돈을 틀림없이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칭의(稱義)의 sign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본 것입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분명하고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좋아했던 것이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좋아했던 가치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고, 하루빨리 마음에서 배설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구원열차를 타고 가면서 차장 밖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전까지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간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이고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키가 2미터가 넘는 성인들이 요만한 구멍에 공을 집어넣으면서 좋아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유명한 선수들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주어지지만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다고 정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법칙을 만들어놓은 게임인데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장과 같습니다. 칩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그 칩이 현찰로 교환이 되지 않는 도박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도박에서 돈을 딸

수 있는 확률과 비슷한데 미신적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내 아들이 공부로 출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부로 출세할 확률이 도박의 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면 그 확률이 도박의 확률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이 진짜로 중요해서 가치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것입니다. 돈, 일류대학, 명품 이런 것들은 밝음이 주어져서 제대로 알게 되면 배설물로 여길 것들인데 좋은 것이라고 약속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하는 광경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차창 밖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것이 구원열차를 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세상을 차창 밖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있다면 그 아내를 차창 밖으로 보는 겁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임 안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같이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 돈 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어떻게 돈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간세상의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기차여행의 풍경 밖을 즐기는 기차여행의 진수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임이고 돈 많으면 좋은 것이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는 도박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엘리트가 됐고 명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찰로 교환이 안 되는 칩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진설병' 이야기를 그 '공허'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차여행의 두 번째 진수로 진짜 풍요로움이 있고 진짜 그곳에만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하면서 돌아다녀보아도 인간 세상에서 정한 가치들은 실제로 내용이 없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배부름이 없습니다. 재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거지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정한 규칙들로 실제 가치를 향한 규칙들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탁구나 축구 농구에 규칙이 있듯이 인간 세상이라는 코트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의 중심에 인간들이 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듯이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세상을 차창 바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하고 내 삶의 주변을 통해서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생깁니다. 진짜 만족이 생기고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초실절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초실절의 의미를 첫 수확한 보릿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요제(흔들어서)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린다

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확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수확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뜻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수확했는데 노동을 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두든지 가꾸든지 해야 하는데 노동을 쉬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했더니 노력한 결과로 첫 열매가 맺어졌고, 노력하면 성취가 얻어진다는 생각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노력을 통해 수확한다는 생각자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수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고 그 수확을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확의 현장에 마음이 빠져들어서 헤매고 있지 말고, 네 몸이 수확하고 있는 것을 차창 밖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차 안에서 너를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의 현장에 마음이 빠져서 노력의 대가를 결실로 거두며 기뻐하려고 한다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차여행의 진수입니다. 기차 안에서의 배부름이 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이 세상 가치를 따라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2호선 구원열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를 따라서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면 내 마음이 기차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초기에는 이 싸움에 정신이 다 팔려서 기차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차창 밖의 풍경을 보지도 못해요. 싸우느라 밝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가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다보면 서서히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블루트레인에서 모든 것이 공짜인 것처럼 공짜로 마음이 불러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 있게 됩니다.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내 생활은 창조사역의 열차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깥 풍경이 되어버립니다. 내 몸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바깥 풍경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인간 세상이 정한 가치들에 묶여서 헐떡거리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과 마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보다 더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을 차창 밖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배설물로 여겨질 가치들에 마음이 묶여서 헐떡거리며 암흑 속을 더듬고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마음이 보일 때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원기왕성하게 그 사람과 내 삶의 주변을 향해서 뻗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설물로 여겨야 될 돈이라는 가치를 많이 얻은 재벌을 부러워하며 마음이 은근슬쩍 빠져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주셔야 하는데, 돈을 주시면 돈이 좋아서 빠지니 어떻게 창조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부터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야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셔도 상관없는 선민이 아닌 경우에는 세상이라는 게임 속에서의 가치들을 갖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민인 한 안 되게 하시고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일이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정한 가치를 먹지 못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일이 안 돼야 합니다. 차창 밖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기차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돈이 벌려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벌린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됩니다. 때로는 병이 나는 것도 좋다고 믿으세요. 병이 나야 할 때인데 안 나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차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차 밖에서의 이 세상의 풍경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당신의 창조사역을 구원사역으로 표현하시며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을 불쌍히 여긴 것과 같습니다. 차창 밖에서 보니까 배설물을 많이 끌어안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구원사역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고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블루트레인을 타고 최고의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아니고 단지 십자가 생활화 하나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내 육체의 삶은 창조사역의 열차를 올라타게 되어서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고, 기차 안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기차여행은 2호선 구원열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기차에서 결코 하차하지 않음으로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차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최고의 기차여행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